

기고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병역의무며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많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휴전상태에서 사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에서 국가 존속을 하려면 우선하여 병역의무 수행을 해야 한다.

‘병역의무’와 양심선언

착한 마음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 문화와 애국심은 목숨을 바쳐 부모에 효도했고, 입진 왜란 때는 전국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의병과 승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으며, 6·25전쟁에서는 학도병이 자발적인 병역의무 수행으로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북한 공산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하고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 긴장된 상태에서 155만일 휴전선을 경비하면서 68년을 살고 있다.

한 나라에서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나라의 외침에 의해 망할 것이다.

병역의무 거부하는 잘못된 양심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부여되면서 각종 외래 종교가 유입되어 효와 애국충정의 국민 정서를 양심선언과 병역의무 거부의 논란으로 성실한 병역의무를 지키는 국민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비하하며, 헌법재판소는 양심선언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어 ‘대체복무 규정’을 거론했다.

그동안 북한은 수많은 남침 도발을 했지만, 병역의무를 지키는 막강한 우리 국군은 물리쳤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했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있었다. 이는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과 국민의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의무 준수에 예외 있을수 없어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은 헌법이며 현재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데 민주국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병역의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없는 위치에 있는 나라라면 병역의무 없이 직업 군인이 국토방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며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부자의 후손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난한 서민의 자녀만 병역의무를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부 종교인 자녀가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이를 동조하는 정치인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상태에서 살고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무다. 이러

사설

미-중 무역전쟁 피해 철저 대비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은 서로 보복관세를 준비하면서 접입가경이다.

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경제에서 0.5%포인트는 매우 큰 수준이라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중국발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실물경제와 금융 흐름을 철저히 모니터링, 미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패권전쟁의 성격이 강한 탓이다. 중국이 경제력과 함께 첨단산업과 군사력에서 급부상하자 미국으로선 중국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을 터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 터키 리라와 급락사태에서 보듯 보호무역주의가 몰고 오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비하는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시 삼성 전장산업 적극 유치를

광주시가 삼성전자의 180조원대 투자 계획 핵심인 자동차 전장산업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이같은 투자 계획을 밝힌데 대해 각 지자체들이 앞다퉀 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들의 유치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이치다.

삼성전자는 최근 총 18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 자동차 부품을 총망라하는 전장부품 생산기지가 핵심이다. 특히 전장산업은 수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삼성 전장사업 유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광주공장의 해외 이전설이 불거졌던 당시 전장산업 유치가 적극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시가 최근 현대차 공장과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는 있지만 삼성의 전장사업 계획이 구체화됐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동차 전장산업 유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특히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지역의 핵심 주력산업인 터라 전장산업이 유치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불문가지다. 따라서 타당성에서 우위에 있는 전장산업 유치가 광주시가 경제, 정치권 등과 협력,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독자광장 이륜차 사고예방은 안전모 착용부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량 법규 위반(안전모미착용) 등으로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아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도로도 손쉽게 운행할 수 있으며, 주차도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중화요리와 커피서비스 등 업체에서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교통체계다.

파수꾼 노릇을 하는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2의 생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교통사망 사고중 오토바이 사망 사고율이 많으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걸치레가 아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구로써

일부 운전자는 안전모가 무겁고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작업모를 착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쓰고 운행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지도 모른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이다.

이제 바람직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과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조규성 광주청 제1기동대 경사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스윙 하라



이봉철의 알짜배기 골프

38 -2 허균의 골프경영

홍길동전은 개혁의 스윙이다. 동반자들은 동반자로서 신분차별이 없어야 하고 고수들이 아닌 비기너들이 또한 하수들이 행복한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혁명한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울도 이상 사회를 스윙한다. 자신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관철되지 못하자 그의 이상은 중국을 섬기지도 않고 조선 사람들도 출입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이다.

라운드의 정제를 위해 논설로 정화시키는 스윙을 한다. 다재다능한 리더는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정치의 최종목표로 하면서 직접적인 사회비판을 논설로 저항의 글쓰기를 시도한다.

호민론의 스윙이다.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자는 오직 백성뿐인데 그 중에서도 호민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호민론에서 그는 사회가 어지러울 때 호민을 중심으로 응집하여 봉기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소설에서 구현한 홍길동과 같은 자가 바로 호민이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하며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유재론의 스윙이다. 하늘이 재능 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문벌과 과거로



써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유재론에서는 부당한 신분제도와 서열차별을 비판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는 누구에게나 재능을 골고루 주었는데 17년-골프 38-2 데 남녀나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론에서 당파싸움에 성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왕에게 돌렸다. 정치는 군주의

전권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보필하는 유능한 관료가 있어야 한다.

병론의 스윙이다. 모든 계층의 병역을 의무화 한다. 그는 양반 사대부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군사가 적다고 하면서 조선에 군사가 없는 책임을 왕에게 돌렸다.

학론에서 잡다한 학자를 등용하여 경륜을 펼치게 할 책임도 왕에게 돌렸다. 유학의 본질은 영달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시와 소설, 논문 등 허균의 문학과 사상을 살펴보면 그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한 위에 필박받고 소외된 비기너의 입장에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이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혁명가였다. 그의 육신은 갔지만 후손에게는 잔잔한 반향을 준다. 홍길동전은 당시 연문이라 하여 천대 받던 한글로 국가의 꿈을 그린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이란 의적을 주인공으로 하여 양반 가정의 모순을 적고 봉건 계급 타파 등 불합리에 항거한 내용의 사회 소설속으로 돌진한다.

골프칼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박사

기고



이울신 무안경찰서장

역사상 최고의 불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더위를 잊기 위해 바다와 계곡 등에는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피서지에서는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인근 3개 숙박업소에 투숙객으로 들어가 객실에 비치된 TV에 총 17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

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2만 여개의 불법 촬영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렇듯 불법촬영이 일상 곳곳에 침투해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와 공포증이라는 뜻의 ‘포비아(Phobia)’의 합성어인 ‘몰카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2012년 2,400건(여성비율 2,286명)에서 2017년 8월 3,914건(여성 비율 3,329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몰카 범죄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확률 또한 54%로 상당히 높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의 형태가 옷걸이, 라이더, 단추뿐만 아니라 샤워기 헤드 등 갈수록 교묘한 형태로 출

시되는 것은 물론 카메라 구입도 손쉽다.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 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내놓고 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탐지 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 낙서 등이 있을 경우 시설주에게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00원 이하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등 여성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치안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 참여가 예방이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해온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이 단순 호기심이 아닌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카메라 설치흔적이나 의심스러운 촬영음이 들리면 주변을 경계하고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불법촬영 코너) 등을 통해 유포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진 및 불법촬영 영상 유출시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법률상담, 삭제, 수사, 의료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이젠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나부터 실천하자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호 사장 발행·편집인 김성호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이도환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